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명 성화년간의 운남 서촉썩히 일위 명인이 이스디 성은 김이오 명은 규라. 즈논 운슈라. 디디 공후거족이오 벼슬이 좌승상의 니르니 명망이 일국의 으뜸이오 세상의 아니 가즌 거시 업스되 다만 슬하의 남녀간 일지 골육이 업스니 미일 슬허 금은 치단을 만히 훗허 명산 디찰과 일월 성신씩 주야 ㉠ __ 원호더니 __ 이찌 삼월 망간이라.

[A] 승상이 부인 뉴시로 더부러 망월누의 올라 스방을 구경호더니 홀연 승상이 술이 반취호미 위연 장탄왈 니나히 스십의 벼슬 승상이오 부귀 극진호디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업스니 우리 죽으면 조선 향화를 뉘게 전호리오 호고 슬허호를 마지 아니호거늘 부인이 피석사죄왈 의 죄악이 지중호와 승상의 치렴호심이 갑소오니 죄스무척이로소이다.

승상이 위로호고 니당으로 도라올시 일낙셔산호고 월출동녕호니 부인이 침소의 잠을 니로지 못호고 추연장탄이러니 홀연 침석의 의지호여 잠간 죠오더니 혼 꿈을 었으니 공중으로서 선녀 일지 옥동즈를 드리고 내려와 부인씩 절호여 왈 등이 영소보전 시네올너니 향아의 명을 밋즈와 선동을 부인씩 의탁고져 호여 왔스오니 귀히 길너 후스를 전호소셔 호고 동즈를 부인씩 안기고 간 디 업거늘 부인이 선녀를 보니고 동즈를 보니 동즈는 아니고 큰 빛이 치마의 담겨거늘 놀나 씨다라니 남가의 일몽이라. 즉시 승상을 씨와 몽스를 니로니 승상이 청파의 디회호여 왈 창턴이 감동호샤 우리의 무후함을 불상이 녀기사 귀즈를 ㉡ 점지호시도다 호고 즐겨호더니 과연 그 돌부터 잉터호여 십삭이 초미 싱남호기를 주야 브라고 집안을 정쇄히 호고 회복호기를 기다리더니

이찌 갑즈 춘 정월 갑즈일이라. 홀연 오식 치운이 집안을 두루며 괴이호 향니 진동호더니 문득 선녀 혼쌍이 공중으로서 내려와 부인것히 안즈며 왈 부인은 잠간 괴운을 진정호소셔 호고 향탕을 디령호라 하니 즈시를 당호여 부인이 혼연호며 회복을 호는지라. 선녀 양인이 가로디 이 아기 모양이 이러호나 하 놀이 정호신 날이니 조금도 드른 녀녀는 말으시고 귀히 길너 턴정을 어긋지 말으소셔. 시각이 느껴가오니 정회를 다 못 펴고 가오니 무음을 허소히 말으소셔 호고 하직호고 가거늘 부인이 선녀를 보니고 아회를 도라보니 아회는 엷고 허무밍냥호 거시 이스되 모양이 둥굴어 것춘 검고 속은 빗치 열웅열웅호 거시 눈도 코도 엷고 마치 슈박 모양 곱호니라. 심하의 어히 엷고 놀나와 시비로 호여곰 승상을 청호디 승상이 부인 회복호를 듯고 희식이 만면호여 전지도지호여 드러와 부인을 위로호며 아회를 밋비 슬퍼보니 아회는 엷고 고이호 거시 것히 노혔는지라.

크게 놀나 흥격이 막혀 이욕이 말을 못호다가 부인드려 왈 회복호 아히 어디 잇노뇨. 부인이 총망중 ㉢ 참고호여 무섭고 무식호여 디답호를 말이 엷는지라. 승상이 어히 엷셔 심각호되 고금의 문견치 못호 이런 변이 또 어디 잇스리오. 인호여 외당의 나와 탄식만 호더라.

이러구러 칠일이 지노미 노복과 닌리 사름들이 승상덕 회복함을 다 즐겨호더니 차차 소문이 들니미 노복과 사름들이 다 놀나호지라. 그 중 늘근 사름이 니르되 넷적의도 이런 날이 이셔 그 속으로서 디망이 나와 사름을 무슈이 ㉣ 살히호고 작난이 비경호여 나라의셔 발군호여 계유 잡아 죽이고 그것 나흔 사름은 흉악호 죄인이라 호야 턴지를 보지 못호는디 가두엇드가 굶겨 죽엿다 호더니 그 말을 들으니 네도 그런 날이 잇던가 보다. 그러커니와 세상날을 측량치 못호리로다. 김승상 성덕으로 이런 변을 당호니 갈충보국호고 인민을 편케 하니 비례지스를 형치 아니호고 겸호여 부인 덕택이 상하의 덤혔호디 심덕을 넘지 못호니 불상타 호고 제인이 다 추연호더라.

이런 말이 즈조 들니 승상이 부인과 심하의 민망호여 침식이 불안호더니 일일은 승상이 심시 ㉤ 쇠락호여 정신을 씨다라 니당의 드러가 부인을 향호여 위로왈 우리 즈쇼로 남의게 적악호 날 엷는지라. 아모리 심각호여도 저거시 우리 골육이니 남은 다 흥물이라 호여도 회복시 선녀의 말이 이슬 쏜더러 무심호 거시량이면 선녀 엷지 와셔 회복거지 식엿시리오. 필경 무삼 이상호 날이 이슬 쏘호니 아모리 흥악호나 집의 두고 나종을 보스이다 호고 석반을 나와 먹더니 그거시 밥상 것히 먹는 소리를 듯고 니불 속으로서 데굴데굴 구울너 나와 승상 것히 노히거늘 크게 놀나 이욕이 보다가 홀연 심각호되 이거시 귀 눈이 엷건마는 밥먹는 소리를 듯고 나와 노히니 필연 밥을 먹고져 흠이니 아모커나 밥을 주어 보라 호디 부인도 고이호여 밥을 가져 것히 노호니 그거시 혼편 녀히 들먹들먹호더니 혼모히 붕긋호며 맞치 주걱 모양 곱호 부리를 니밀어 밥을 완연이 먹거늘 승상이 하 고이호여 부인을 도라보아 왈 이거시 밥이 엷는가 호엿더니 밥을 능히 먹으니 사름이량이면 난 지 십여일만의 엷지 혼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모커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호니 부인이 웃고 밥을 쏘 가져다 노호니 그거시 고이호여 주는디로 먹으미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히 녀이더라.

[B] 그거시 밥 먹는 디로 점점 즈라 큰 동희만 호엿는지라. 승상이 부인을 청호여 보고 크게 ㉥ 의혹호여 그로디 이후는 밥을 쓴치 말고 조석으로 먹이라 호고 미양 여것저것 호지 말고 일흠을 지어 원이라 호라 호다. 밥먹기를 장히 호미 점점 즈라 큰 방안의 가득호니 더욱 흥호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호여 왈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쏘을가 시부니 너른 집으로 옮기자 호고 노복을 명호

여 니르디 이거슬 여러히 ㉢ 윤전하여 후원 월영각의 가져다 두라 하니 비복이 계유 옴겨 월영각의 두고 조 석을 ㉠ 공급하더니

수년 지니의 혼 섬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조라 방이 터지게 되느니라.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아지 못하여 답분분하여 주야 근심으로 지니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어나 덧 십여년이 되엿느니라.

이찌 순무년 칠월 망간이라. 마츰 황상 탄일이라. 텃히 티평 하고 빅성이 부요하여 처처의 격양가를 부르니 텃지 전교하사 니외전의 건풍연을 비설하리고 널후 종실과 만조빅관을 통명전의 모흐시고 녹궁비빙과 삼천 궁녀와 만조디신 부인니는 니전의 조회하여 꺾중 니외 종일 ㉡ 연락하니 향기로온 음식과 조흔 풍악이 전각의 진동하며 삼천 궁녀는 오식 치의를 입고 가무 연락하니 광치 념농하며 난봉 공작들은 쌍쌍이 계하의 춤을 추니 세상 승경이 비할 디 업느니라. 니외 히중이 디취낙나 하되 오직 승상 부부는 집을 싱각하고 ㉢ 심상하여 반점 희식이 업느니라. 종일 잔치 하다가 일낙셔산하미 각귀기가하니 승상 부부도 시비를 거느려 집으로 도라오니라.

0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객관식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령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 ② ㉡: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 ③ ㉢: 슬픔에 잠겨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④ ㉡: 대상의 정체가 밝혀지자 안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 ⑤ ㉢: 잔치의 흥겨움에 도취되어 집안일을 완전히 잊고 있다.

02

세부 내용의 사실적 이해 · 객관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상은 술기운에 자신의 나이와 후사가 없는 처지를 한탄하였다.
- ② 부인은 꿈속에서 항아의 명을 받은 선녀로부터 동자를 건네받았다.
- ③ 마을 노인은 과거에 괴물을 낳은 여인이 굶주려 죽었다고 전했다.
- ④ 승상은 괴물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식으로 인정하였다.
- ⑤ 황제의 탄신 잔치에서 승상 부부는 가무를 즐기며 근심을 잊었다.

03

보기를 통한 종합적 감상 · 객관식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소설에서 '기아(棄兒) 모티프'나 '이상 탄생'은 주인공의 비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특히 허물이나 껍질에 싸인 채 태어나는 '난생'이나 '포태' 형식은 주인공이 시련을 겪으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도기적 단계를 상징한다. 이때 부모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괴물을 낳았다는 수치심에 아이를 버리는 '거부'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천명(天命)을 믿고 끝까지 보호하려는 '수용'의 태도이다. 전자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후자는 주인공이 훗날 허물을 벗고 영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

- ① 부인이 낳은 '슈박 모양 굵은' 괴물은 〈보기〉에서 말하는 이상 탄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마을 사람들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 흉악한 죄인이라 비난하는 것은 기아 모티프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회적 압박에 해당하겠군.
- ③ 승상이 '필경 무슴 이상한 날이 이슬 뜻하니'라고 말한 것은 천명을 신뢰하는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괴물을 '월영각'으로 옮겨 밥을 먹이며 기르는 행위는 주인공이 영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적 보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승상 부부가 잔치에서 근심하는 모습은 괴물이 허물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04

인물의 말하기 방식 분석 · 객관식

[A]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상은 자신의 사회적 성취와 개인적 결핍을 대비하여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승상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후에 제사가 끊길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③ 부인은 승상의 근심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을 자처하고 있다.
- ④ 부인은 승상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⑤ [A]의 대화는 인물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공유하며 서사의 비장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05

소재의 기능과 의미 추론 · 객관식

윗글에 나타난 '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괴물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적 수단이다.
- ② 승상이 괴물을 흉물로 규정하고 집 밖으로 내쫓는 명분이 된다.
- ③ 괴물이 생명체임을 증명하여 승상이 수용을 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부인이 선녀의 예언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복선으로 작용한다.
- ⑤ 마을 사람들이 승상의 가문을 칭송하게 만드는 기적의 증거로 활용된다.

06

서술상 특징 파악 · 객관식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직접 내리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 편집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든다.
- ④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성장과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세밀하게 하여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외부로 투사하고 있다.

07

밑줄 친 부분의 표현과 기능 · 객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이의 탄생이 인간의 의지가 아닌 초월적 존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 ② ㉡: 과거 사례 속 괴물이 저지른 잔인한 행위를 강조하여 현재의 위기감을 조성한다.
- ③ ㉢: 괴물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옮겨야 함을 보여준다.
- ④ ㉣: 괴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정성껏 보살피는 부모의 사랑을 상징한다.
- ⑤ ㉥: 황실의 화려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드러내어 승상 부부의 심리와 대비시킨다.

08

인물의 심리 및 갈등 이해 · 객관식

윗글의 '승상'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문의 명예를 위해 괴물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하려 노력하고 있다.
- ② 과거의 불행한 전례를 근거로 부인을 죄인이라 비난하며 멀리하고 있다.
- ③ 선녀의 예언과 괴물의 생명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황제의 잔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으려는 보상 심리를 보이고 있다.
- ⑤ 괴물이 자라 집을 부술 것을 우려하여 월영각에 가두어 굶기로 결정하였다.

09

서사 구조와 공간의 의미 · 객관식

[B] 구간에 나타난 '원(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상이 직접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괴물에게 가문 내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 ② '원'의 성장은 승상 부부에게 기쁨보다는 의혹과 측량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고 있다.
- ③ '원'이 방을 부술 정도로 커진 것은 그가 지닌 비정상적인 생명력을 시각화한다.
- ④ '월영각'은 '원'의 신비로운 본질이 드러나기 전까지 머무는 격리된 성장 공간이다.
- ⑤ 승상은 '원'의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조식으로 먹이는 밥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10

화자 및 인물의 정서 변화 · 객관식

윗글에 나타난 '부인'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책과 비탄 → 신비로운 기대감 → 당혹감과 참회함 → 지속적 불안
- ② 간절한 염원 → 세속적 욕망 → 환멸과 분노 → 체념적 수용
- ③ 고독과 소외 → 일시적 환희 → 냉소적 태도 → 적극적 개선 의지
- ④ 막연한 공포 → 확고한 신념 → 배신감과 증오 → 근거 없는 낙관
- ⑤ 평온한 일상 → 갑작스러운 충격 → 강한 거부감 → 무조건적 헌신

〈보기〉는 윗글의 '마을 노인'이 참고했을 법한 고대 설화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옛날 한 부인이 큰 알을 낳았는데,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라를 망칠 요물의 징조이니 즉시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부인이 차마 버리지 못하고 방치하자 알에서 지네가 나와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결국 관군이 출동하여 지네를 죽이고 부인을 엄벌에 처하니, 이후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탄생을 보면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라 믿게 되었다. 이러한 '재앙적 변신' 설화는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공포를 반영한다.

- ① 마을 노인이 전한 '대망' 이야기는 〈보기〉의 '지네' 설화와 유사한 사회적 공포를 공유하고 있겠군.
- ② 마을 사람들이 승상을 '불상타'고 여기는 것은 그가 지닌 '성덕'과 괴물 탄생이라는 '재앙'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겠군.
- ③ 승상이 괴물을 집안에 두기로 한 결정은 〈보기〉속 부인의 '방치'와 달리 선녀의 계시라는 신성한 근거에 기반한 것이겠군.
- ④ '원'이 밥을 한 섬씩 먹으며 방이 터지게 자라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기〉의 재앙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비춰졌겠군.
- ⑤ 황제의 잔치에 참여한 만조백관들이 승상 부부를 위로하는 것은 〈보기〉의 점쟁이가 내린 처방과 동일한 맥락이겠군.

윗글의 사건 전개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이 '원'을 월영각으로 옮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다.
- ② 선녀들이 '향탕을 대령하라'고 한 것은 괴물의 흉측한 외양을 정화하기 위한 주술적 행위이다.
- ③ 부인이 겪은 '남가의 일몽'은 장차 태어날 아이가 겪게 될 시련과 고난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④ 승상이 '원'에게 밥을 더 주어 보라고 한 것은 그의 생존 본능을 시험하여 인간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 ⑤ 황제의 잔치 장면은 승상 부부의 개인적 불행이 국가적 차원의 경사와 결합되어 해소됨을 의미한다.

윗글에서 묘사된 '괴물(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짙은 검고 속은 빛이 얼음얼음하며 눈과 코가 없는 비정상적인 외양을 지니고 있다.
- ②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지각 능력과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
- ③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정도로 비범한 식성을 보여준다.
- ④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체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거처를 옮겨야 할 정도가 된다.
- ⑤ 선녀의 예언에 따라 특정한 시기가 되면 스스로 허물을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는 매일 아침 가족의 안녕을 위해 정화수를 떠 놓고 기도했다.
- ② ㉡: 친구의 비밀을 발설한 것이 탄로나자 그는 몹시 당황했다.
- ③ ㉢: 비가 그친 뒤 산사의 공기는 매우 차갑고 맑았다.
- ④ ㉣: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자 형사는 사건의 전말을 확신했다.
- ⑤ ㉤: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마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상은 자신의 나이가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것을 큰 불행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의 꿈에 나타난 선녀는 향아의 명을 받아 동자를 데려왔다고 밝혔다.
- ③ 괴물이 태어날 때 오색 채운이 집안을 두르고 기이한 향기가 진동하였다.
- ④ 승상은 괴물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귀와 눈이 있음을 확신하였다.
- ⑤ 황제의 잔치에는 육궁비빙과 삼천 궁녀를 비롯한 만조백관의 부인들이 참석하였다.